

강진군 군동면, 벼 모내기 · 귀리 수확 현장 방문

무안군,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 추가 모집

강진군 군동면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4일 관내 농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인 하계 벼 모내기 작업과 겨울을 버티낸 동계 귀리 수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동면장은 벼 모내기가 한창인 논과 황금빛 귀리 수확이 한창인 들녘을 차례로 찾아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특히 이모작 전환기로 인해 일손 부족 등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직접 듣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폭염 대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동면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강진 귀리의 주요 생산지인 만큼, 이번 수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곧바로 이어지는 벼 농사가 지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동면 관계자는 “하계 벼 모내기와 동계 귀리 수확이 겹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영농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기계 임대와 인력 지원 등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기상 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지도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동면은 주요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작황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군동 영농현장 방문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고민재 기자

무안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무안군(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도시민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낮추고 농촌 지역의 빈집 활용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으로, 무안군으로 전입 예정인 세대원 동반 가구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출 및 각종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추가 모집은 2026년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몽탄면 약곡길 소재 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민재 기자

목포,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목포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을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 배출시설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녹조 발생과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3단계로 진행된다. 6월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이후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 관내 무료급식소 하절기 현장점검 실시

전남 함평군이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 중인 관내 무료급식소에 대한 하절기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함평군은 9일 '함평군 관내 무료급식 수행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중심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품 안전 관리와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폭염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은 보건소 위생팀과 합동으로 ▲급식시설 전반의 위생상태 ▲식자재 검수 및 보관관리 실태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

각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급식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시설과 긴밀히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불용 농기계 농업인 우선 매각 추진

신안군은 불용 농기계 재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자원 효율화를 위해 2026년도 불용 임대농기계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발생한 불용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각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압해읍, 도초면, 신의면, 장산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진행되며, 관리기와 예초기 등 활용도가 높은 소형 농기계를 포함해 총 50종 183대가 대상이다.

매각대상은 “신안군 관내 농업인이고, 기준금액 대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로 추진되니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매각 일정과 품목 정보는 신안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 '배수로지킴이' 가동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배수로지킴이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방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오프라인 단

계 릴레이 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영암군봉사회 ▲영암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영암군지회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암군새마을회 ▲남도사랑영암군봉사단 ▲바르게살기운동영암군협의회 ▲영암군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영암군지회 ▲영암군4-H연합회 ▲영암군방법연합

회 ▲영암군의용소방대 등 관내 사회·자원봉사단체 12곳이 참여해 11개 읍·면별로 지정된 상습 침수구간 및 도로변 빗물받이, 저지대 주택가, 전통시장 주변 등 릴레이 정비 활동을 펼친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침수 취약지역을 사전 정비하고 여름철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